

## 부 고

메리 프란시스 MARY FRANCIS 수녀

ND 4330

메리 엘리사벳 더 Mary Elizabeth DIRR



미국, 원죄없이 잉태되신 성모 관구

출 생	1922 년 1 월 9 일	오하이오 세비엇
서 원	1946 년 8 월 13 일	켄터키 커빙턴
사 망	2026 년 6 월 27 일	켄터키 커빙턴
매 장	2026 년 7 월 3 일	켄터키 커빙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요한 15,9)

메리 엘리사벳 더는 프레드릭과 아이다(아일러스) 더 부부의 생존한 자녀 중 막내딸이었다. 메리 엘리사벳은 신앙심이 깊고 화목한 가정에서 5남매 중 넷째로 자랐다.

세인트 마틴 초등학교에서 기초 교육을 받았으며, 오하이오주 프라이스 힐에 있는 시튼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G & G 제조 회사에서 근무했다. 사고 모임이나 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기도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수도생활에 대한 더 깊은 소명을 느끼고 있었다.

1943년 9월 8일, 21세의 나이에 메리 엘리사벳은 언니인 메리 릴리아 수녀가 이미 몸담고 있던 켄터키주 커빙턴의 노트담 수녀회에 입회했다. 1946년 서원을 한 메리 프란시스 수녀는 타인, 특히 특수 교육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시작했으며, 이러한 사도직 활동에서 깊은 보람을 느꼈다.

수녀는 자신의 사명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학업을 이어갔다. 빌라 마돈나 대학(현 토마스 모어 대학교)에서 초등교육학 학사 학위를,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에 있는 세인트 캐서린 대학에서 작업치료 자격증을, 켄터키 대학교에서 특수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수녀의 사목 활동은 교육과 돌봄에 대한 깊은 투신으로 특징지어진다. 켄터키주 커빙턴 교구, 앨라배마주 버밍엄 교구,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대교구에서 교사이자 교장으로 봉사했다. 또한 콜드 스프링에 위치했던 성 요셉 보육원의 관리자로 일했으며, 레드우드 학교 및 재활 센터에서 13년 동안 헌신하며 따뜻한 자애와 투신으로 수많은 이들의 삶을 풍요롭게 했다.

말년에 메리 프란시스 수녀는 조용한 성찰과 기도의 삶을 보냈다. 수녀는 동료 수녀들과의 우정을 소중히 여겼으며, 가족 및 옛 제자, 친구들과도 의미 있는 관계를 이어갔다. 104세의 일기로 선종할 당시, 수녀는 미국 내 노트담 수녀회에서 최고령이었다.

수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으로는 부모님과 형제자매인 매튜, 아멜리아, 엘스위스, 로렌스, 마사, 안젤라, 메리 릴리아 수녀(SND), 윌프레드 신부, 세실리아, 로버트, 리처드, 로잘리아, 알로이시우스가 있다. 유가족으로는 헌신적인 조카들과 종손주(조카의 자녀 및 손주)들이 있다.